

장흥군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논란

1월 정기인사로 함께 근무하지 않은 부서장 평가에 불만 되풀이
시점 차이로 합리적인 평가 안돼...행안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평가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듬해 2월 진행되는데,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1월 정기 인사로 인해 상당수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새로운 동료들이 업무 평가를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 최고 ‘S’ 등급에서부터 ‘A’, ‘B’, ‘C’ 등급으로 나눠 이듬해 2월 말에 차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을 ‘근무 성적’ (30%)과 ‘부서장 평가’ (70%)를 반영해 업무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70%의 비중을 둔 부서장 평가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6급 이하는 해당 실·과·소장이 평가한다.

문제는 6급 이후 부서장 평가가 근무기간과 평가시점의 차이로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다음해 2월께 부서장이 평가하는데, 부서장이 1월초 정기인사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업무를 함께 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에 한 번도 함께 근무하지 않은 후임 부서장이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 한 공무원은 “지난해에는 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1월1일 자료 새로 부임한 부서장이 평가함에 따라 하위 등급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공직사회는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부서장 평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학습역량 강화·나눔문화 확산’

담양군, 평생학습동아리 모집

다음달 14일까지 신청

담양군은 지역민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을 통한 개인의 성장, 나눔문화 확산, 주도적인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담양군 평생학습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평생학습 동아리란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월 2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자아 발전과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팀별 100만원 내외이며, 항목은 강사비와 교재 및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담양군민으로 구성된 8명 이상의 성인, 가족 학습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이면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학습 공동체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 코로나 극복 ‘그린뉴딜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그린펀드’ 조성·뉴딜협동조합 설립도



담양군은 지난 23일 최형식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취약계층 보호와 재정 확대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담양식 일자리 모델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제로화,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의 바이러스 없는 방역 및 환경정책 강화, 산소가 가장 많은 지역 만들기 위한 탄소 제로화 추진, 친환경 농업·위생축산 강화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농산물 온라인 유통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그린하우스),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한 위생식단 정착,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 군민이 실천할 생활문화 준칙 마련 등 기존의 생태도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담양식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대나무 울타리 등 생태적 경관조성으로 공공형·농촌형 일자리 창출, 대나무 및 산림자원을 통한 숲과 정원도시 조성, 차별화된 여가 및 레저용 인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돌담길 등)의 체계적 관리로 담양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시범마을 육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그린재생 개념을 도입해 담양 예술구와 담양읍 중앙로 주변에 단풍 중심의 먹거리 창업공간 마련,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위한 그린펀드 조성 등 뉴딜협동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향을 설정한다. 5월부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각계각층이 참여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의 가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영역이 확대되고 재정 분배에 있어 공정·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태도시 담양의 강점을 살린 담양다운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담양의 그린뉴딜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무농약 6년차 벼’ 지원 중단...유기농 전환

벼 농가 인증 단계 상향 유도
채소·과일 등 품목 확대 지원

나주시가 유기·친환경 농업에 주력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농약 벼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수·채소 등 다양한 품목별로 무농약보다 유기농 등급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증 상향 추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대상에서 ‘무농약 6년차 벼’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순으로 인증 기준이 높고 엄격하다. 무농약보다 유기농 인증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올해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에서 벼 농가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66%가 무농약 벼 인증 농가로

‘유기농 농산물’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6년차 벼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단계 상향 또는 타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벼 위주의 친환경 인증을 소비자 욕구에 맞춰 채소·과일 등 품목으로 확산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과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업(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로 ▲벼·특작·기타작물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50만원 ▲채소 유기농 160만원, 무농약 100만원 ▲과수 유기농 180만원, 무농약 120만원씩을 지급받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시역 친환경농업 무농약 벼 재배단지.

화순군,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서도 시행

화순군은 27일부터 지역의 병·의원에서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화순군보건소뿐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인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이동규소아과의원에서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보건소에서만 무료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남도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역의 위탁 병·의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로타바이러스 감염병은 5세 미만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설사·발열·복통 등 위장관염 증상이 나타난다.

보호자가 화순군을 포함한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